

남원시, 미세먼지 저감위해 총력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저녹스버너 지원 추진

남원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함께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및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

원 사업 신청은 3월 18일까지로 방지업체를 통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남원시청 환경과로 제출하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9억원의 예산으로 먼지, NOx등이 배출되는 방지시설의 경우 최대2.7억까지 지원가능하고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www.namwon.go.kr)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로 사업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로 2020년 예산은 16,695천원으로 용량별로 1대당 최소 248만원에서~최대 1천 520만 원을 지원한다.

왕길성 남원시 환경과장은 "사업장의 재정부담 완화와 더불어 시설 개선을 통해 깨끗한 대기 환경과 기업경쟁력 상승하는 환경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농기계 정비로 한해 농사 만전기해

농기계 사용 전 점검 및 정비 당부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와 고장발생 예방을 위해 농기계 사용 전 반드시 점검 및 정비를 실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센터 관계자에 의하면 겨울철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정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엔진오일 또는 냉각수 부족으로 인한 엔진 과열이나 브레이크 작동 불량 등으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농기계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깨끗이 씻어내고 기름칠을 해주고, 각 부위의 배선, 연료·오일 누출, 볼트·너트 풀림 등을 점검해 이상이 있는 부위는 즉시 정비하도록 해야 하며, 엔진과 미션 오일의 양과 상태도 점검하고 유량점검 게이지를 확인해 부족하면 보충하고 오일 색깔이 검거나 점도가 낮으면 교환해야한다. 냉각수는 새는 곳은 없는지, 적당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는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120회)을 하고 있다.

양인지 점검하고, 에어클리너는 오염 상태를 확인해 청소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브레이크 또는 클러치 페달의 유격(기계 장치의 헐거운 정도)은 정해진 범위가 되도록 조정하고, 좌우 브레이크

유격이 동일인지 확인하고, 배터리 충전과 단자 상태도 꼼꼼히 살펴본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영농철에 농기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순회 수리교육(120회)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토마토 발효고추장' 면역력 관심 집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자 증가로 면역력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창군에서 개발한 토마토발효고추장에 대한 관심이 한껏 뜨거워지고 있다.

순창토마토 발효고추장은 순창군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사장 황숙주)에서 확보한 면역력이 우수한 토종 발효미생물인 고초균(특허미생물)을 사용해 만들었다. 여기에 토마토의 기능성 물질인 라이코펜과 고추장에서 분

리한 유산균, 고추의 캡사이신 성분이 토마토발효고추장에 함유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세포 실험과 수컷 쥐를 이용해 4주간 토마토발효고추장을 경구투여해 면역활성을 측정한 결과 면역지표가 증가했고, 체중은 고추장을 섭취하지 않은 쥐에 비해 감소했다는 학술적 결과 또한 얻어 관련 산업체들도 향후 활용기회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이러한 기능적 특성으로 인해 현재 아팠(이현경 대표)은 순창토마토발효고추장을 이용한 떡볶이 소스제품을 특화해 집중, 판매에 나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가 4월까지 교정시설(교도소) 유치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교정시설 유치 설문조사 용역 추진

남원시, 읍·면·동 거주 시민 800여 명 대상

남원시가 교정시설(교도소) 유치에 대한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설문조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남원시에서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읍면동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설립 및 자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교정시설에 대한 현장체험 활동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교정시설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오해와 반대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남원시는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

시하고 이를 교정시설 유치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역은 2월부터 4월까지 60일간 23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시민 800여 명을 표본대상으로 1:1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되며,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찬반 의견, 교정시설 건립부지 공모 후보지 등을 홍보 및 조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교정시설을 단순히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한 국가기관 유치로 인식하기 바란다"며,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시민의 소리를 들려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노후된 버스 승강장 교체·신규 설치 추진

임실군은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된 버스 승강장 8곳을 교체하고 6곳을 신규 설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군은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대기 시간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버스 승강장 방향 텐트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버스 승강장 설치 기준은 읍면별 사용 빈도가 높으면서 노후화로 수리가 어려운 곳과 조적식 구조로 오래된 승강장을 대상으로 교체된다.

특히 35사단 외출 장병들을 지원하기 위한 1개의 대형승강장도 포함돼 있다.

군은 다음 달 중 현장 점검을 통해 교체 대상의 철거 공사를 진행 후 5월까지 신규 승강장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한 텐트의 경우 개방된 승강장에 동절기 강풍과 한기를 막기 위해 지난

해 7곳을 시작으로 확대 수요 조사를 통해 올해 23개가 추가돼 모두 30개의 승강장이 설치·운영된다.

주로 동절기인 11월부터 4월까지 설치 운영돼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의 시설적인 불편함을 줄여 안전한 버스 이용과 교통약자, 35사단 외출 장병들의 편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통 문제로 걱정 없는 임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지역 소식통

순창경찰서, 신축위해 임시청사로 이전예정

순창경찰서가 청사 신축계획에 따라 순창향관광농원(구 월정초교, 구립면 구립로3-2)로 이전한다.

지난 1984년 지어진 순창경찰서는 낡고 비좁아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으며, 건축물 안전진단 D등급으로 건물안전성과 내진성이 부족해 붕괴위험이 큰 건물로 조사되었다.

순창경찰서는 3월 24일부터 임시청사로 본격적인 이전을 시작해 3월 27일까지 조속히 이전을 마무리하고 3월 27일부터는 순창향관광농원(구 월정초교)에서 업무를 시작하고, 또한 읍내에 출장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경찰 구림파출소 마을 담당 경찰관 재정비

순창경찰서(서장 정재봉) 구림파출소(소장 류근원)에서는 지난 20일 상반기 인사발령으로 관내 마을에 지정된 마을 담당 경찰관을 재정비하고 실속 있는 운영을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등 눈길을 끌고 있다.

마을 담당경찰관은 각 마을별로 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담당 경찰관의 사진, 연락처 등을 게시하여 수시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역할을 하고 있다.

류근원 소장은 "우리마을 담당경찰관 재정비와 동시에 지역 실정에 맞게 민접담이, 보이스 피싱 예방요령은 물론 경찰이 항상 주민 곁에 있음을 적극 홍보하여 체감치안 향상은 물론 주민과 친밀감 증대 및 협력치안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